

시험감독이 준 선물

전날 저녁, 필자의 아내는 그냥 버리기가 아까웠던 때문인지 오래된 전(顛) 몇 조각을 상한 줄도 모르고 미련스럽게 꾸역꾸역 밀어 넣다가 끝내 탈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한동안 갑상선암 제거수술에 시달려 제대로 몸을 추스르지도 못하고 있었던 차제에, 얹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 대장염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병치레는 뒷전에 두고 구들장을 끓여진 채, 오뉴월 엿가락 늘어지듯 길게 늘어지는 말로 필자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오늘 딸아이 중간고사 시험감독에 임해야 하는 데, 자기를 대신해서 좀 나가주면 안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필자는 지금은 병치레가 우선이 아니겠냐는 답답한 속내를 감춰두고, “왜 학부모가 시험감독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해 따져 물었지만, 아내는 귀찮다는 듯 아무런 말없이 그저 천정에 시선을 박고 눈만 껌뻑껌뻑 처량한 척 그렇게 필자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필자는 수업이 없었던 이유에서, “에라, 이것도 예정된 운명이겠거나...” 생각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렇게 시험감독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시험감독을 명분으로 딸아이 학교대기실에 집결해 있었던 학부모들은 설마라는 필자의 기대와는 달리 모두가 엄마들이었습니다. 이에 무척 창피하고도 계면쩍었지만, 그것도 잠시, 그들은 필자의 시선을 힐끗힐끗 피해가며 “어쩌면 그라도 제 아이를 끔찍이 사랑하고 있었기에 엄마도 아닌 아빠가 나왔을까?”라며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문득 조금 전까지의 창피는 창피를 넘어서 이내 뜻 모를 무서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모든 학부모가 모이자 교장선생님이 반가운 미소를 띠고 우리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시험감독은 외견상 핑계에 불과하고, 이처럼 학부모들을 학교에 모신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대해 주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학부모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처음 말문을 떴습니다.

당시 대면에서 교장선생님의 변(辯)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그라도 착하고 온순한지 모르겠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이게도, ‘그게 다인 듯싶은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꼬집어 두셨습니다. 곧 우리 아이들이 착하고 온순하나 그밖에는 달리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그분의 변이었습니다. 이 말에 모든 학부모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음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우리 자식의 성적이 얼마만큼 향상되었으며, 그러기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교장선생님은 이에 더하여 “제발 우리 아이들을 하릴없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보습학원이나 과외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학원에 나갈 수 있게 부모들이 적극 나서서 학교교육을 보충하거나 앞서 배울 수 있도록(선행학습) 배전의 후원과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다하여 비로소 시험감독에 임했을 때, 필자가 접한 당시의 시험광 경이란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명색이 그것도 시험이라면 시험이었을 텐데, 그들의 모습에선 도대체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아닌지도 의심스럽게 천진난만하기 끝 간 데 없었습니다.

먼 창밖만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 아이, 책상위에 그대로 엎어져 있는 아이, 아무 생각 없이 턱만 괴고 있는 아이, 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 필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는 아이, 지우개만 또박또박 굴리고 있는 아이 등 그렇게 우리아이들은 천진난만해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필자는 비로소 교장선생님의 말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같은 대도시(大都市)라고 하더라도 서울 여느 학교의 모습과는 판이했습니다. 긴장되고 숙연하며 개미 한 마리 꿈틀대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시험의 모습과 말입니다. 족집게 과외, 수백만 원을 넘는 과외비, 새벽같이 데려다주고 이른 새벽에서야 데리고 오고, 숨쉬기도 힘들게 짝 짜인 일상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의 면면을 대해 보면서 불현듯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어떻게 꾸리게 하고 또 꾸릴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맞닥뜨려진 교육문제와 교육환경의 폐해에 대해서는 그간 수많은 고민과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리고 대책 없이 그저 그렇게 무심히 세월만 보내고 있어야

할까요? 제이무리 훌륭하고 내로라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만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남의 자식이 더 잘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행여나 뒤처지지는 않을까? 행여나 도태되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끌어내리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리고 대책 없이 그저 그렇게 세월만 보내고 있어야 할까요? 자식을 둔 다 같은 부모로서 이 노릇을 어떻게 감당하고 해결하여야 할까요? 필자 또한 답을 찾기가 그다지 녹록하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화제를 바꾸어, 필자는 앞선 통계지표 중에서 한 가지 의미 있는 기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 개신교인구(2005년 기준, 8,616,438명) 중에서 10-14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제일 많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는 0세부터 79세까지 5년 단위로 쪼갠 16개 그룹 중에서[0-4(1), 05-09(2) ... 70-74(15), 75-79(16)]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곧 전체인구(8,616,438)에서 80세 이상의 인구(132,382)를 제외하고(8,616,438-132,382=8,484,056) 각 그룹별 평균 530,256명($8,484,056 \div 16 = 530,256$)보다 무려 20만 명이 많은 737,136명이나 됩니다(참고로, 50세 이상 79세까지 6개 그룹의 평균은 224,706명입니다). 특히 이 수치(737,136명)는 유독 개신교의 다른 그룹(15개)은 물론이고, 다른 종교의 동일한 그것과 비교할 경우에도 현격하게 높은 수치입니다(불교 579,113명, 가톨릭 398,217명).

그런데 이 수치는 15-19세에 이르게 되면 되레 약 20만 명이 그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보다 심각한 사실은 이 같은 추세가 80세에 이를 때까지 줄곧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지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로 새겨 앞서 척박한 교육환경에 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까요? 한 번쯤 고민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하 지난 날 필자 딸내미와 함께 겪었던 기억을 예로 들어 본말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필자의 막내딸(이하 '민주'라 합니다)이 중학교 1, 2학년을 거치며 있었던 일입니다. 유년주일학교를 지나 중등부 교회학교에 막 들어섰을 때, 민주는 뜻밖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곧 당시까지 아빠엄마의 뒤통에 못 이겨 교회주일학교에 나갔던 것이 상례였었는데, 이참엔 그러한 모습들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당체 무슨 느닷없는 댕바람이 불었기에 이처럼 개과천선(改過遷善)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유를 알기까지에는 그다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저마다가 작시(作詩)한 가사를 교회전도사님이 노래로 만들어 이를 CD에 구워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교회선생님들로부터 저마다 악기 하나씩을 배워 그나마 어눌한 대로 불고, 켜고, 치고, 두드리면서 시시때때로 작은 음악회도 열고,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용돈을 가지고 구공탄(九孔炭)을 사다가 쪽방 촌 이웃어르신께 선물도 하고, 고사리 손으로 잔뜩 빗어낸 새알 죽을 쑤어 교회 권사님들께 대접도 하고, 추수감사절 교회선생님과 함께 키운 방울토마토를 단상에 가지런히 하트모양으로 꾸며 올려다 놓기도 하고, 지들이 직접 어린이찬송에 이런저런 율동을 붙여 유희(遊戱)대회도 개최해 보고, 십자가 3개를 만들어 서로서로 성경구절을 암송해 가면서 성극(聖劇)도 꾸려보고, 때로는 어린이 찬송을 수화(手話)로도 불러

보고, 여름방학 헌옷가지나 아껴둔 학용품이나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장신구나 인형 등을 가는 곳마다 팔아 이를 노잣돈으로 교회선생님과 함께 무전여행(無錢旅行)을 떠나도 보고, 우리교회 ‘삼손선발대회’(팔씨름), ‘에스더 선발대회’(한복맵시자랑), ‘성경구절 빨리 찾기 대회’, ‘전국사투리 성경구절 암송대회’ 등을 개최도 해보는 등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재밌고 기쁘고 즐겁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다름 아닌 민주를 개과천선에 이르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가기 싫다”고 청얼대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라고 해야 정들었던 전도사님께서, 또는 함께했던 교육목사님께서, 또는 토요일마다 안부를 물어주셨던 교회선생님께서 먼 사역지로, 또는 타지로 떠나시게 되던 날이 전부였습니다. 그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투정 아닌 기쁨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민주는 그 또한 정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필자가 직장을 옮겨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땐 정말이지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울고불고 뒤집어지면서 그것도 “아빠만 가!”라며 생떼 아닌 생떼를 쓰고, 급기야 생떼는 저만이 알 수 있는 울부짖음으로서 온 동네를 들쭉서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타지의 교회생활에서 민주의 신앙(신앙생활)에는 묘한 변화가 일게 되었습니다. 곧 걱정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때마다 주일이면 한사코 교회가기를 거부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교회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기보다 주일학교에 나가지 않고 어른예배에 참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짐짓 “이전처럼의 멋들어지고

윤패했던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없었던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결코 그것만이 이유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주의 시각에서도 이전의 그때보다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낮지는 않았다는 치더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곧 굳이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내키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런대로 다닐만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민주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은 물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큰 이유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를 “짜증나고 신경질 나며 꼴도 보기 싫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이처럼 완곡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참으로 그 사연은 필자가 보기에 도 천인공노(天人共怒)할 것이었습니다. 민주가 전해준 사연을 이려했습니다.

이 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뿌리 깊은 교회였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100년의 역사를 바로보고 또 뜻 깊게 가슴에 새겨두어야 한다는 기치아래 기관별 교회의 역사교육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교회의 지난 100년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한 장로님이 중등부 학생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민주뿐만 아니라 민주의 교회친구들 또한 이 같은 교회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있었던 까닭에, 따분한 강의임에 못내 시큰둥했었겠지만 제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주위의 많고 많은 시선을 따돌리면서까지 혈혈단신으로 도망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단에 선 한 장로님은 교회역사 강의 전에 꽤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자신의 이력을 학생들 앞에 내보였다고 합니다. 심심풀이

땅콩 식으로 강단 전면 스크린에 그것도 뽁뽁하게 들어찬 가짓수(장로의 이력)를 헤아려보니 무려 18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 애비에 그 딸’이 아니랄까봐 이처럼의 불만을 드러냈을까 싶은 생각에 뜻 모를 자괴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로도 몇 주일을 지나는 동안 그 장로의 이 같은 행태는 교회의 전 기관 전 부서 어느 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줄기차게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또한 취지가 아무리 옳았다고 하더라도, 앓된 중학생의 눈에 이처럼 짜증나고 신경질 나게 비취졌을 요량이면, 어찌 보면 본말이 전도된 알량한 장로의 이력자랑은 그들 앞에 또한 교회 앞에 겸손히 뒷전에 두었어야 마땅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보다는 그 장로 또한 교육계에 있었다고 하면서 민주와 그 친구들의 짜증나는 속내를 미연에 헤아릴 수는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극에 달한 민주의 마지막 불만의 변은 이러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그 장로님을 앞으로 장로님이라고 불러야 해? 아니면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해? 아니면 사외이사라고 불러야 해? 아니면 연구소장이라고 불러야 해? 정말 짜증지대로야” 이 같은 원성은 민주뿐만 아니라 각 기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봇물 터지듯 했습니다. 물론 소리 없이 쉬쉬하면서 말입니다.

그 장로의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일대예배 사이에(2부와 3부) 설교단 앞에 큰 칠판을 하나를 덩그렇게 세워두고 장년들을 대상으로 성경강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필자 또한 예배에 임하기 전 강의를 뜻하지 않게 수차례 들어 보았지만 그때마다 느꼈던 심상이 제아무리 내세울 것이 많은 장로라고 하더라도 이는 장로가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이어 주일대예배(3부)가 있을 터인데, 무슨 자격에서 어떠한 연고로 이처럼 강단을 점하고, 그것도 근본과 배경 없는 설교 아닌 설교에 임하고 있는지를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로 아닌 모든 장로가 나아가 전 교인들 또한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사실로서 주위에서는 이 교회를 일컬어 선생이 너무 많은 교회로 그러기에 장로들의 입김이 너무 센 교회로 낙인찍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사실은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비밀 아닌 비밀로 쉬쉬거리게 취급되어 저마다의 속내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전에 담임목사님마저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위세를 가진 교회(장로)였다면 더 일러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기에 교회분위기는 자연스레 힘 있는 자(장로)들의 손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때로는 정치인이 선거 때 자신에게 표를 달라며 주일대예배 시간에 거리낌 없이 일어서게 되고, 그도 얼마가지 않아 뇌물수수죄로 형장에 끌려가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은 물론, 교회의 머릿돌에다가 교회 역사 100년을 통틀어 우리가 가장 존경하여야 할 신앙의 선대로 기억하여야 한다며 그들의 얼굴을 동(銅)으로 만든 흉상부조(胸像浮彫)에 담아 턱하니 박아두고, 일제강점기에 숨겨둔 교회 종이기에 마땅히 문화유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하늘 높이 세워 걸어두고, 그것도 이를 시민들이 기려야 할 것이라며 홍보하기에 바쁘고, 후보의 한 면이 현금액과 함께 명단으로 도배가 되어있음은 둘째치더라도, 한 주일도 빠짐없이 특하면 누구누구의 무슨 수상(受賞)이다, 개업이다,

산악회다, 바자회다, 해외출장이다, 특별헌금이다, 해외친지방문이 다, 개인선교일정이다, 이사일정이다, 그것도 모자라 주일 교회인근 외부 식당의 이름을 버젓이 걸어놓고 무슨 모임이다, 친목회다, 등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한 면입니다. 원로장로, 은퇴장로, 은퇴협동장로, 시무장로가 누구누구라는 사실은 후보의 마지막 대단원을 장식하고 있는 한 면입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마 11:25-26)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마 18:01-06, 막 09:36-37, 눅 09:47-48, 눅 18:16-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인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마 19:14-15)

한 번은 이런 유치한 모습에 참다못한 필자가 교회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곧 “무엇보다도 교회 구석구석을 새로운 것, 값비싼 것, 그럴싸한 것, 돋보이는 것 등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교회교육관을 개보수(改補修)해서, 그곳에 기쁘고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을 담아,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뛰놀고 재미있어 하는 중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또한 맛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그들의 친구는 물론이고 빈둥빈둥 주일을 뜻 모르게 허비하고 있는 그들의 부모 또한 교회로 이끌지 않겠느냐”는 것이 필자의 변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10-14세에 해당하는 우리 자식들의 공로가 이 같은 사실을 추상같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결정적인 예표로 보아 마땅할 것’이라는 게 필자의 변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곧 “교회부흥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유년주일학교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 누구 앞에서라도 한 치도 양보할 수 없었던 필자 주장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는 교육관의 개보수는커녕 수억 원을 호가하는 파이프오르간을 교회강단 뒷벽에 박아두고야 맙니다. 고작 500명이 앉으면 비좁기 그지없을 예배당에 거대한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해 두었음을 볼 때, 만약 여리고성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보다는 작았으면 작았지 더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필자가 본 그 모습 그대로였다면 이는 그야말로 갓 쓰고 자전거 타는 셈이라고 밖에는 달리 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의 교육관은 그야말로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앞서 본 추계대로라면 조만간 아예 아이들의 흔적은 고사하고 지나는 강아지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본 통계는 이를 우리에게 낱낱이 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원인[병(病)]은 어디에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병(원인)의 맥을 어떻게 바로 짚어 처방에 임해야 할까요? 곧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그러기에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할 것인가 말입니다.

필자는 한 교장선생님이 바로 보셨던 우리 학생들의 그 모습 그대로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곧 그 천진무구(天真無垢)함 속에서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렇지만 장황하지 않게 신경 써 가면서 되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선 통계지표에 비추어, 10-14살 된 아이들이 이처럼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필자의 생각엔 아마도 다음 둘 중에 어느 하나일 것이라 봅니다. 곧 부모가 관심을 보여 때마다 그들을 교회로 이끌었던지(전자), 아니면 부모의 관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왔던지(후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필자는 결단코 후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비유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자식이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교회로 이끄시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말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더니 그야말로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들이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 산 증인이 필자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이 말에 다른 반론이 없을 요량이면 후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이 아마도 틀림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교장선생님의 말(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곧 교장 선생님의 말 맞다나 학교교육이 모자라다고 보아 외부의 과외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보고 계십니까? 그 타당성은 다음 어느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면 각각의 조건에 따라 어느 것 하나를 고려해 봄직 할 것입니다. 곧 자식에게 돈을 쏟아 부으면 붓는 대로 그 많고 적음에 비례하여 성적향상은 물론이고,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정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전자) 있겠지요. 필자 또한 이 말을 전적으로 부정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하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곧 자식에게 돈을 쏟아 붓지 않으면 쏟아 붓지 않는 대로 그 돈의 적음에 비례하여 성적향상은 물론이고,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정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후자) 있겠지요. 필자 또한 이 말을 전적으로 부정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자와 후자의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이 보다 성적을 향상시키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도 저도 아니면 반반씩일까요? 필자의 생각에는 반반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하나있습니다. 그것은 전자의 주체는 부모이고 후자의 주체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전자는 부모가

그들의 돈을 투자하여 부모의 꿈을 다만 자식을 앞세워 대신 이루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후자는 나름대로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신들의 꿈을 계발(啓發)하여 그들의 꿈을 부모의 슬하에서 끝이끝대로 이루고자 한 것이라는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개 양자의 속내는 아마도 이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가 저마다 처한 형편대로 우리 자식들을 위해 투자함과 동시에, 또한 그들의 뜻을 존중하여 그들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고 조력해 준다면 또 결과는 어떠할까요? 필자 생각에는 전자와 후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고 또한 더 행복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교장선생님의 말은 옳은 말이 아닐까요? 다만 바로잡을 것은 과외가 아니라 그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투자해 달라고 했다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의 꿈은 또한 저들이 추구하는 장래의 행복은 어디서 찾고 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앞선 사례에서처럼 스스로가 내로라 하며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게끔 버젓이 내놓은 그 장로의 이력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곧 그 장로가 우리 자식들의 멘토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장로의 이력이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기대해마지않고 있는 그것이 아닐까요? 정히 그렇지 않다고 보아 이 같은 장로의 행태를 지켜보며 필자처럼 천인공노한 것으로 치부해 두셨습니까?

네 번째로, 이 장로처럼 첩판에 밑줄을 그어가며 남들 앞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앞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여나 놓칠 새라 귀를 쫓긋 세워가며 들음에 임하고 있는 우리 자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식들이 나를 남보다 앞세워 두고자 전전긍긍하고 있는 장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고자 안타깝게 애쓰는 집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섯 번째로, 파이프오르간의 음색으로부터 물밀듯한 감동이 더할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불고, 켜고, 치고, 두드리는 악기소리의 음색에서 물밀듯한 감동이 더할까요? 수상, 개업, 산악회, 바자회, 해외출장, 특별헌금, 교우동정, 친목회, 원로장로, 은퇴장로, 은퇴협동장로, 시무장로의 면면이 보다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삼손선발대회, 에스더 선발대회, 성경구절 빨리 찾기 대회, 전국사투리 성경구절 암송대회의 행사치레가 보다 더 궁금하십니까?

저명한 아동심리학자이자 정신과의사인 영국의 도널드 위니컷(Donald Winnicott) 박사의 말을 빌리면, 그는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큰 성(城)이 있다고 하면서 이 성을 결코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 담긴 뜻은 우리 어른들은 결코 그 성내로 진입하려 들지 말고 오직 성 밖에서 그들로 하여금 일탈치 않게 지켜보아주고 다독여주며 그들이 꿈꾸는 대로 그들의 의지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만의 성을 장식하고 꾸려나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부모 된 또한 어른 된 자들의 무한책임이라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필자생각에 이 말은 이리보고 저리보아도 ‘그 하나만 빼고’ 틀린 구석이 하나 없는 멋들어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틀린 구석으로서 ‘그 하나’란 바로 부모 된 또한 어른 된 자들의 또 다른 부모를 곧 하나님으로 모셔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식들을 이어주고 있는 가교(架橋)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자식들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를 터주고, 또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축복의 통로를 터줄 수 있는 가교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투자는 곧 ‘길을 터주는 것’ 자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그 성 안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아니 머물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뿌리를 틀고 앉아 마치 성의 주인이나 되는 듯싶게 너스레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간에 자신의 성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수차례 빼앗겨 가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뉘 놓고 무심한 하늘만 바라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수가 무려 737,13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간 축복의 통로가 마치 냄새나는 수챗구멍처럼 꼭 막혀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우리 자식의 장래 앞에 결코 좌절이나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위한 우리 부모들의 끊이지 않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그 영광을 이 땅위에 추상같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될 수 있도록 부모 된 우리가 무시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찌 보실까요? 그것도 자식의 무사안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자식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하여 그도 귀하고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밝고 맑은 장래를 예비해 두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

면 부모 된 우리의 투자는 오로지 그들의 장래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협력하여 이것이 고스란히 자랑스러운 우리 자식들의 선이 되어 이 땅위에 명명백백히 그것도 추상같이 바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08:28)

이달 첫째 주는 민주 중학시절을 마감하는 기말시험이 있을 요량입니다. 이번에는 필자가 아내를 대신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말시험 감독에 나서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떨려올 따름입니다. 그 밝고 천진난만한 우리 자식들의 얼굴을 접할 들뜨고 부푼 생각에 말입니다.